



한국의 보물, 해인<11>

(8) 해인을 주는 과정과 사용법에 관한 설명의 유무

해인을 주는 방법도 이야기마다 조금씩 다르며, 보물의 이름과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방식도 다르다.

- 가① 용왕이 망설이고 사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나중에 시험해 보면서 자득했다.
- 가② 푸른 것과 붉은 것 가운데 고르라는 용왕의 명령이 있으면 붉은 것을 고르라고 치녀가 미리 알려주었다. 용왕이 해인을 주면서 깊이 감추어 두었다가 누군가 와서 달라고 할 때 주라는 단서를 붙였다. 해인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자득했다.
- 가③ 처음에는 제일 작은 것으로 내주었다. 용왕이 망설이다가 중간 크기의 도장을 주었다. 제일 급한 일에 한 번만 써먹고 임자가 오면 내주라는 단서를 붙였다. 사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 가④ 사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나 화자(話者)는 이미 알고 있는 듯이 이야기한다.
- 가⑤ 용왕이 해인이 아직 육지에 나갈 시대가 아니라고 말했다. 동자가 해인에 대고 정성을 들이면 된다고 사용법을 가르쳐주었다.
- 가⑥ 용왕이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주었다. 사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터득했다.
- 가⑦ 용왕이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준다고 말했다. 사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 가⑧ 해인을 못 주겠다는 용왕에게 아들이 때를 써서 할 수 없이 내준다. 총각이 사용법을 가르쳐주었다. 말하면 말하는 대로 나온다고 알려주었다.
- 가⑨ 용왕이 못 준다고 거부했지만, 자신의 강권으로 할 수 없이 내주었다. 총각이 말하면 하는 대로 필요한 물건이 나온다고 사용법을 가르쳐주었다.
- 가⑩ 용왕이 아직 때가 덜 되었으므로 해인을 못 주겠다고 말했다. 계속 요구하자 할 수 없이 주면서, 주는 주는데 때가 덜 되었으니 그냥 걸어두었다가 십 년 후에 임자가 오면 서슴없이 내주라는 단서를 붙였다.
- 가⑪ 용국 임금의 아들이 찾아와 아버지에 명에 따라 해인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해인은 부르는 대로 물건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 가⑫ 용왕이 해중(海中)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아들의 간청에 할 수 없이 내주었다. 소년이 아쉬울 때 부르면 뜻대로 되는 물건이라고 귀뜸해 주었다. 그러나 화자(話者)가 사용법을 모른다고 표현했고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었다.
- 가⑬ 소원대로 들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준다. 용왕이 “원래 주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시렁 위에 앉아서 보

관만 했다.

나① 하늘의 옥황이 연적이 없어진 사실을 알면 당장에 자기 모가지를 끊을 정도로 중요한 붉은 연적이니 용왕이 말했다고, 그 가운데 작은 것을 받아온다. 태자가 글자를 써서 들면 된다고 사용법을 가르쳐주었다.

나② 먹을 종일 써도 마르지 않는 용약이라는 값진 보물을 받아왔다. 용왕이 용약을 줄 때 설명해 주었다.

나③ 비루를 받아왔다. 보물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용왕은 해인이라는 보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해인을 쉽사리 내주지 않는다. 그리고 해인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법을 가르쳐 줄 때는 왕자가 설명한다.



용왕도

해인의 사용법은 주로 말하면 말하는 대로 필요한 물건이 나올 것이라고 알려주거나, 해인에 대고 정성을 들이라는 것이었다. 해인을 얻은 사람이 사용법을 자득한 경우는 글자를 써서 그 위에 해인을 찍으면 해당하는 물건이 나왔다고 전한다.

해인의 사용법은 주로 말하면 말하는 대로 필요한 물건이 나올 것이라고 알려주거나, 해인에 대고 정성을 들이라는 것이었다. 해인을 얻은 사람이 사용법을 자득한 경우는 글자를 써서 그 위에 해인을 찍으면 해당하는 물건이 나왔다고 전한다.

한편 해인이 인간계에 나올 시기가 아니라는 복선을 깔거나, 이인이 나타나 해인을 달라고 요구하면 망설임 없이 내주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처럼 용왕은 해인을 주면서도 해인을 받아가는 사람이 제 주인이 아니라는 암시를 분명히 했다.

(9) 이인(異人)이 찾아오는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해인을 빌리는 방법

해인을 지상에 처음으로 가져온 사람이 해인을 사용해서 필요한 물건을 나오게 하여 한동안 잘살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어떤 이인이 소유자를 찾아와 해인을 빌려달라고 요구한다. 이인이 소유자를 찾아오는 과정과 해인을 빌리면서 이인이 하는 말이 각기 다르다.

- 가① 천기(天機)를 보고 종이 찾아온다. “절을 짓고 되돌려주겠다.”라는 종의 말에 소유자는 해인을 선포 내주었다. 그런데 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절에다 해인을 숨겼다. 원래의 소유자가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종이 왜 돌려주지 않았는지도 설명도 없다.

가② 용왕이 “훗날 어떤 사람이 와서 ‘보물을 내주시오’라고 말하면 내주라.”고 말했던 일을 기억해 낸 소유자가 어떤 종이 찾아와 해인을 달라고 요구하자 쉽사리 내주었다.

가③ 소유자가 해인을 주지 않으려고 탄정을 부리다가, 한번 밖에 못 써먹는다는 이인의 말에 할 수 없이 내주었다.

가④ 이인이 찾아오지 않는다.

가⑤ 소유자가 처음에는 해인을 주지 않으려고 가지고 있지 않다고 시치미를 댔다. 그러나 “이미 알고 왔으니 내놓으라.”라는 도승의 말에 할 수 없이 내주었다. 일 년 후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도승이 임의로 해인을 보관했다.

가⑥ 정승이 직접 해인을 사용하여 해인사를 짓는다.

가⑦ 양반이 직접 해인을 사용하여 해인사를 창건한다.

가⑧ 종이 한 시간 동안만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소유자가 처음에는 거절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소유자가 찾으러 갔더니, 종이 “개인이 가지고 있을 보물이 아니라, 해인사를 짓기 위해 나온 보물이다.”라고 말하고는 돌려주지 않았다.

가⑨ 해인사를 지으려면 자원이 많이 드니 해인을 빌려달라는 해인사 주지의 설명이 있었다. 곧 쓰고 갖다 주겠다는 약속에 소유자가 할 수 없이 빌려주었다.

가⑩ 서산대사가 해인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소유자를 찾아와 “도장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라.”라고 말하고는 자기 물건처럼 가져갔다.

가⑪ 소유자가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서슴없이 내주었다. 후일 종이 해인사를 지은 다음에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려고 와 보니, 그가 벌써 죽어서 할 수 없이 해인을 감추어 두었다.

가⑫ 중(道사)이 소유자를 찾아와서 한 번만 써먹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자, 사용처를 모르는 최씨가 쉽게 빌려주었다.

가⑬ 해인사를 지은 중(道술가)이 소유자를 찾아와서 보배를 달라고 요청하자, 자기는 쓸모없고 필요도 없는 물건이니 가지고 가라고 쉽게 내주었다.

나① 서산대사가 등천할 때 사명당에게 물려주었다.

나② 설명이 없다.

나③ 설명이 없다.

이인이 소유자에게 해인을 빌리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가질라는 사례(가③, 가⑤, 가⑩)도 있지만, 대부분 사례에 용왕의 단서를 기억하여 쉽게 내주거나 서슴지 않고 이인에게 내주었다. 심지어 자신에게는 쓸모없다고 말한 경우도 보인다.

이인은 해인을 빌려달라고 말한 경우가 많은데, 일단 해인을 빌린 다음에는 처음의 주인에게 되돌려주지 않는다. 해인은 개인이 보관하는 물건이 아니라고 말하며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달거나, 돌려주자 했지만 그 사람이 이미 죽어서 할 수 없이 보관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어쨌든 해인은 개인이 사사로이 사용하는 보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해인설화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

김탁 박사 / 신종교 연구가